

직장인 평균 월급 309만원...女, 男보다 '124만원' 덜 벌어

통계청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평균 월급 男은 360만원 女는 236만원

중위값도 283만원-196만원, 1.4배 차이

女 소득 비중 150만~250만원에 집중돼

지난 2019년 직장인(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0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97만원) 대비 12만원(4.1%)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소득은 360만원, 여성은 236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같은 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중위값은 234만원이다. 중위 소득

은 전년 대비 14만원(6.3%) 증가했다.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상~150% 미만인 근로자는 50.4%로 1.4%포인트(p) 증가했고,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근로자는 20.1%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28.5%로 가장 많다. 25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16.7%, 85만원 미만 14.9%, 85만원 이상~150

만원 미만 10.2% 순이다. 1000만원 이상은 2.3%로 조사됐다.

소득을 성별로 보면 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60만원으로 여성(236만원)의 1.53배 수준이다. 단, 전년 대비 격차는 일부 줄어들었다. 남성은 14만원(3.9%), 여성은 11만원(5.1%) 각각 증가했다. 남성의 중위 소득은 283만원으로 여성(196만원)의 1.44배다.

여성의 소득 비중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 집중돼있다.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구간의 비중이 37.8%로 같은 구간 남성 비중(21.9%) 대비 15.9%p 높다. 35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의 경우 여성 비중은 6.5%로 남성(12.1%)의 절반 수준이다. 1000만원 이상 여성 비중은 0.7%로 남성(3.4%)의 5분의 1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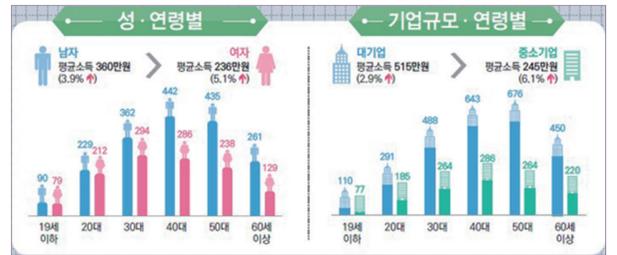
남성은 40대(442만원), 여성은 30대(294만원)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다. 남성은 40대, 50대(435만원), 30대

(362만원) 순, 여성은 30대, 40대(286만원), 50대(238만원) 순으로 높다. 성별 평균 소득 차이는 50대(198만원)에서 가장 크고, 19세 이하(11만원)에서 가장 작다.

소득을 조직 형태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정부·비법인 단체 소속의 평균 소득(244만원)이 가장 높다. 회사 이외 법인(423만원), 회사 법인(380만원), 개인 기업체(197만원) 순이다. 여성도 정부·비법인 단체(269만원)가 가장 높다. 회사 법인(261만원), 회사 이외 법인(244만원), 개인 기업체(161만원) 순이다.

소득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의 평균 소득은 대기업(588만원)·비영리 기업(424만원)·중소기업(274만원) 순으로 높다. 여성도 대기업(354만원)·비영리 기업(257만원)·중소기업(195만원) 순이다.

직장인 평균 연령은 44.4세다. 남성은 44.8세, 여성은 43.7세다. 평균 근무



기간은 5.3년으로 남성(6.0년)이 여성(4.4년) 대비 1.6년 더 길다.

평균 소득은 40대(381만원)·50대(357만원)·30대(335만원)·20대(221만원) 순으로 높다. 60세 이상은 207만원, 19세 이하는 84만원이다. 중위 소득은 30대(300만원)·40대(299만원)·50대(236만원)·20대(211만원)·60세 이상(154만원)·19세 이하(52만원) 순이다.

전 연령층의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증가율은 19세 이하(7만

원·8.5%), 20대(15만원·7.3%), 50대(16만원·4.8%), 40대(16만원·4.5%)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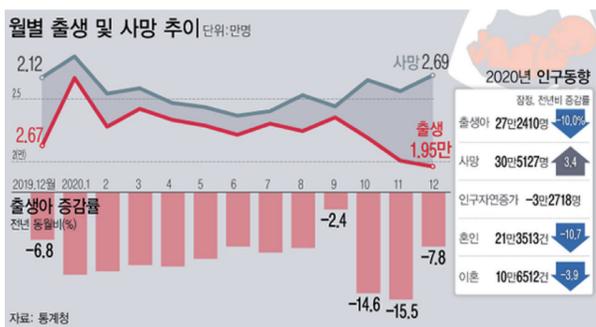
통계청은 연중 4대 사회 보험에 가입됐고, 원천 징수·소득 신고 등으로 행정 기관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자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이 통계를 작성했다. 특수 형태 근로(특고) 종사자 일자리는 제외했다. 집계되는 세전 기준 월 단위 소득이고, 실비 변상 형태로 지급되는 출장비·유류비 등은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최이슬 기자



‘삼겹살데이에 우리 돼지 드세요’ 한돈자조금은 삼겹살데이(3월 3일)를 맞아 ‘한돈 먹고 대한민국 뽕심충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뽕심 충전을 위한 대대적인 삼겹살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사진=한돈자조금 제공)

월 출생아 1만명대로...61개월 연속 감소

코로나19에 미룬 결혼...혼인 건수도 역대 최저치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대로 추락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한 달 동안 7000명 넘는 인구가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자연 감소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출생아 수는 1만9576명으로 전년(2만1228명)보다 1652명(7.8%)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출생아 수로는 역대 최저치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2016년 4월 이후 동월 기준 56개월째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전년보다 0.4명 줄어 4.5명에 불과했다. 역시 역대 최저치다.

이에 따라 올해 1~12월 누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30만2700명) 대비 3만300명(-10.0%) 감소했다. 2017년 30만명 대(35만7771명)

로 주저앉은 뒤 불과 4년 만에 20만명대에 진입한 셈이다.

12월 사망자 수는 전년(2만6722명)보다 0.7% 증가한 2만689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역대 최대치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6.2명이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7323명이다. 2019년 11월부터 14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작년 1~12월 누계 기준 인구 자연감소는 3만3000명에 달했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것이다.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루면서 12월 혼인 건수는 전년(2만4945건)보다 11.2% 감소한 2만2139건에 그쳤다. 작년 1~12월 누계 혼인 건수는 21만3513건으로 전년 동기(23만9159건)보다 10.7%나 줄었다.

이렇게 혼인 건수가 줄어들면 향후 출생아 감소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서선욱 기자

하이트진로음료, '석수' 친환경 무라벨로 전환

하이트진로음료가 무라벨 '석수'를 선보인다.

비닐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투명 페트병을 간편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묽음 포장으로 판매한다. 기존 라벨에 명시한 상품명과 로고, 의무표시사항 등은 페트병 용기,

뚜껑, 묽음 포장 외면에 표기한다. 다음달 중순부터 CU를 비롯한 편의점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에 무라벨 생수를 공급한다.

2분기(4~6월)부터는 당사 생수 페트 생산량 50% 이상을 무라벨로 전환한다. 향후 묽음판매 제품 전 물량을

무라벨로 바꿀 방침이다.

석수는 국내 최초 먹는 샘물 브랜드다. 물 맛과 기능을 측정하는 경도가 '적당한 경수' 수준으로 충분한 미네랄을 함유, 목넘김이 좋은 천연 지하암반수다.

김민정 기자

‘코로나19 직격탄’ 인천공항, 올해 적자 8600억원 전망

공사 “코로나 이전으로 수요회복 3~4년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약 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인해 올해 8609억원이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17년만에 428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손실 폭은 더욱 커져 8609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올해 8609억원의 적자가 예상됨에도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사와 임주사들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도 7700억원의 사용료 감면과 3900억원 납부유예 등 실시한 바 있다.

공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항공여객 회복은 최소 3~4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항공수요는 지난해 최저점을 찍은 이후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구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는 지난해 약 4268억원 적자 기록 등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임대료 감면 4740억원, 납부유예 2400억원, 영업시간 탄력운영 등 면세업체를 전폭 지원해왔으며, 올해 임대료 감면액도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공사와 면세업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달 말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사업권 연장 영입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1터미널의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존속사업자와 임시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탓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 받던 인천공항도 대규모 공실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높았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 면세점의 연장 영업 6개월을 진행한데다 관세법상 이들 업체들의 추가 영업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사는 대규모 공실사태와 면세점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직을 막기 위해 기존 1터미널의 보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경복궁 면세점에 매장면적 확대 및 임시운영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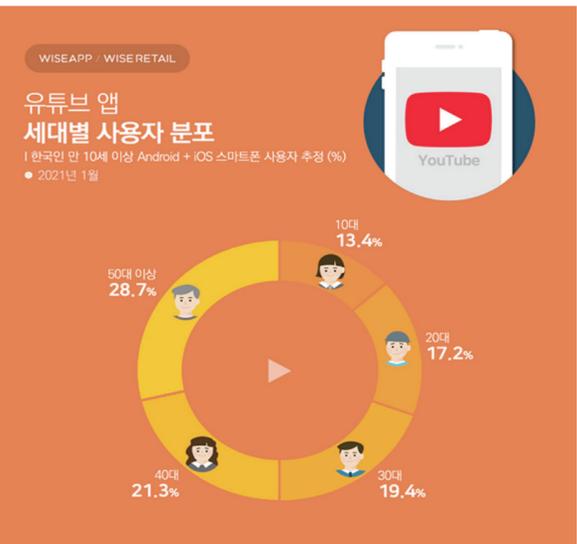
공사는 3사에 임시 운영을 추진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던 700여명 직원의 고용승계를 추진했으나, 지속되는 면세점의 적자와 협력사 브랜드 의사에 반해 영업지속을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영업 중이던 모든 브랜드 유지와 종사자 전체를 고용승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3사에 임시운영을 추진하는 매장은 DF2(향수·화장품)·DF3·4(주류·담배)·DF6(패션) 등 4곳으로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공사, 정부 기관, 면세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존속사업자의 임시운영 및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면세점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에는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유튜브 최다 이용세대는 50대 이상...1인당은 10대 1위”

앱애니, 올 1월 유튜브 사용현황 분석해 발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88%가 구글의 OTT 서비스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튜브 사용자수와 총 사용시간 1위는 '50대 이상'이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과 와이즈리테일이 지난 1월 한 달간 유튜브 앱의 사용자 수와 사용시간 조사결과를 23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1월 유튜브 앱을 사용한 한국

인은 총 4041만명으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568만명 중 88%가 유튜브를 1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용시간은 12억3549만 시간이었다. 1인당 한 달에 30시간30분, 하루에 약 1시간을 이용한 것이다.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세대는 전체의 28.7%를 차지한 '50대 이상'이었다. 40대가 21.3%, 30대가 19.4%, 20대가 17.2%, 10대가 13.4% 차례였다.

총 사용시간도 50대 이상이 가장 높았다. 12억3549만시간 중 50대 이상이 2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가 23.3%, 10대가 20.6%, 30대가 17.2%, 40대가 13.6%로 뒤를 이었다.

다만 1인당 한달 평균 이용시간은 10대가 46시간52분으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20대가 41시간31분, 30대 27시간10분, 26시간56분, 40대 이상 19시간30분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 만 10세 이상 개인 안드로이드 사용자 3868만명과 iOS 사용자 700만명, 총 4568만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유튜브 앱 사용자수와 체류시간을 분석했다. 오유나 기자